광주안전망'더촘촘히'…자치구·LH CCTV 483대 이관

광주시, 올해 추가로 627대 이관 예정 시민안전 지킴이로서 역할 톡톡히 할 것

광주지역 범죄예방용 폐쇄회로(CC)-TV가 확충돼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방범용 CCTV 총 483대를 이관받아 범죄예방용 CCTV로 통합관제하고 있다.

자치구가 범죄취약구역 등에 설치한 403 대(서구 65, 남구 177, 북구 72, 광산구 89)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22대(빛그린국가산업 단지),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15대 등이

광주시는 현장조사 등 CCTV 설치 단계에서 부터 자치구와 사전협의를 하고, 시설물 관리 전환을 위해 카메라, 비상벨 작동 여부 등을 집 중 점검해 이관 절차를 마무리했다.

올해는 자치구의 CCTV 이관계획에 따라 지 난해보다 144대 더 늘어난 627대가 이관될 예 정이어서 시민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통합관제를 실시, 현재는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차량번호인식용 등 5개 자치구에 분포된 CCTV 9600여 대를 전문관제원 89명이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민의 생활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전남도, 새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확대 지원…100억 투입

전남도가 각종 풍수해·재난·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새해 확대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억원 증가한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 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돼지·말·가금류 8종 (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 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가축사육시설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이젠 해양관광 시대"···전남·경남·부산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수도권 버금 새로운 성장축 육성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가 천혜의 섬·갯 벌·해안 등 세계적 해양관광자원의 보고인 남 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2월28일 광양월드마린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경남지사와 함께 남해안을 지중해와 멕시코칸쿤에 버금가는 세계적 해양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뛰어난 역 사문화 자원을 자랑하는 남해안을 글로벌 신 해양 관광·휴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해 대한 민국의 케이(K)-관광을 견인하는 발판을 마련 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식은 김영록 지사, 박완수 지사, 박형준 시장과 오동호 국립섬진흥원장, 전남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등 관계 출연기관장, 3개 시·도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개 시·도지사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아름다운 섬, 갯벌 등 천혜의 자연유산, 독특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남해안을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할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운데)와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박완수 경남지사(왼쪽)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전남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주요 협약 내용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과 연계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연계·협력사업 공동 추진, K-관광세계화 선도를 위한 관광브랜드 및 관광상품 공동 개발, 세계인이 찾는 휴양벨트로 만들기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등이다.

또 국가 주도의 광역관광권 개발을 위한 가

칭 남해안권 관광개발청 신설 공동 노력,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민·관 전문가 추진협의 체 구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 동 노력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하동 세계 차 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등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전남도, 남도역사 깃든 비경 '으뜸숲' 12곳 선정 '전남 방문의 해' 맞아 널리 홍보…명품숲 후대 계승

전남도가 오랜 세월 보존하고 관리해온 남 도의 역사가 깃든 '으뜸숲' 12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으뜸숲' 선정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감 춰진 보물 같은 아름다운 숲을 널리 알리고, 잘 가꾸고 보전해 미래 세대에게 명품숲을 물려 주기 위해 이뤄졌다.

22개 시·군에서 대표 관광자원화 할 숲 44곳을 신청 받아 역사성, 보전성, 대표성, 심미성등을 고려해 월별·계절별로 12곳을 엄선했다.

선정된 으뜸숲은 1월 담양 명옥헌 원림 설경, 2월 광양 옥룡사지 동백숲, 3월 구례화엄사 흑매, 4월 화순 환산정 원림, 5월 신안 대둔도오리 당숲, 6월 화순 송석정 원림, 7월 신안임자도 해송숲, 8월 법성포 숲쟁이숲, 9월 해남녹우당비자숲, 10월 영암 느티나무 노거수, 11월 강진 초당림, 12월 장성 축령산 설산이다.

봄철 으뜸숲인 구례 화엄사 흑매는 1702년 조선 숙종 때 심은 홍매화로 국보 제67호 각황 전과 함께 화엄사의 명물이다.

화순 환산정 원림은 조선중기 병자호란 의 병장인 백천 류함 선생의 나라사랑의 숲이다. 신안 대둔오리 당숲은 천연난대림으로 풍어 와 안녕을 기원한 제를 지낸 신성스러운 숲이

여름철 으뜸숲인 화순 송석정 원림은 조선 선조 때 훈련원첨정(종4품)을 지낸 양인용 선 생이 조성한 유서 깊은 숲이다.

신안 임자도 해송숲은 다도해 풍광과 어우러진 보석같은 숲이다. 영광 법성포 숲쟁이 숲은 조선 중종 때 축조된 법성진성의 연장으로 조성된 느티나무 숲으로 된 성이다.

가을철 으뜸숲인 해남 녹우당 비자숲은 조 선 중기 윤선도의 고택 녹우당 뒤편에 조성된 비자숲이다.

영암 느티나무 노거수는 대표 당산나무로 정월 대보름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 제



를 지냈다. 강진 초당림은 백제약품 창업자 고 김기운 회장이 60여 년간 가꾼 숲이다.

겨울철 으뜸숲인 담양 명옥헌 원림은 조선 후기 학자 오이정이 가꾼 민간정원으로 명승 제58호다.

광양 옥룡사지 동백숲은 천연기념물 제489 호로 지정돼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장성 축령산 편백숲은 산림왕 고 임종국 선

생이 조성한 우리나라 대표 편백숲이다. 계절별 으뜸숲 방문은 소재지 시·군 누리집

계절별 으뜸숲 방문은 소재지 시·군 누리집 관광정보를 참고하거나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계절에 맞춰 으뜸숲을 방문해 지혜로운 선조의 숨결과 함께 남도의 아름다운 숲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숨어 있는 으뜸숲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전해 지역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2 느단 1364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나상호 (710829-1650619) 최 후 주 소 : 광주 광산구 금봉로 106, 107동 1503호 (우산동, 세계수영선수촌중흥에스-클래스센트럴)

위 망 나상호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 산에서 제외함.

2023년 1월 2일

공 고 인 : 나금희. 주 소 : 광주 동구 용산2길 8, 101동 1303호(용산동, 대성베르힐) 한정승인수리일 : 2022년 12월 27일







■ 세무기장·조정

